



## 보성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박차

보성군은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차의 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집적화된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최종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롯데' 일원에 티볼(Tea Bowl)센터, 전망육교 및 회전교차로, 자전거체험코스길, 빗경관 등을 조성한다.

전망육교 및 회전교차로는 이달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롯데 주변 관광시설물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티볼센터(Tea Bowl)는 내년 4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녹지와

### 내년말 완공 롯데 일원 티볼센터 등 80억원 투입 차의 문화·관광·산업 어우러진 융복합단지 조성



관련된 식음·판매·체험공간 등이 설치되면 잠재된 지역 농산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 다각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롯데에서 사업의 목적과 세부사업 설명, 의견수렴 등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산관련업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티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시행중이며, 현장포럼을 통한 입주예정자의 맞춤형교육, 농축산물 판매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민협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에도 힘을 계획한다.

군 관계자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농산관련 업체 및 농가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함평군, 예산효율화 최우수지자체상 수상

효율적 예산사용으로 도내 유일 '흑자 축제' 기록

함평군이 2017년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상 수상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상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함평군은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관람객 24만5882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흑자를 기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최비용보다 많은 8억원의 입장료수익을 거둬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함평군은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키우고 다양한 상품종을 개발해 저비용, 고효율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금낭비를 사전에 차단했다. 축제 기획과 전시 등을 공무원

이 도맡아하고 군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나서으로써 소모성 예산을 대폭 줄였다.

그 결과,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가 공개한 '지자체 축제·행사 원가 회계정보'에 따르면, 전남도내 대규모 축제와 행사 중 흑자는 낸 곳은 함평군이 개최하는 내비축제와 국향대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영호 군수는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가 아니라 돈버는 축제, 군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행정과 군민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며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와 올해 알뜰한 재정운영으로 알뜰살뜰 전국 최우수군에 선정돼 13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 신안군, 2018년 천일염

육성사업 공모·신청

신안군은 내년 1월 5일까지 '2018년 천일염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관련단체 및 생산자들에게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34억 2천만원을 투입해 염전 생산시설 자동화 및 비박재 개선, 염전취·배수용 배관 설치, 포장재, 중·장기 저장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한 사업들은 2018년 천일염 생산시기 도래 전에 시공이 필요한 사업과 설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위주로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어촌계 방송, 이장회의 및 읍면 행정방송 등을 통해 홍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담당 부서 또는 특산물유통사업소 천일염진흥계 061)240-8347~9 등으로 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외에도 신안천일염의 명품화와 국내외 소비진척을 위해 각종 박람회 및 행사참가를 지원하고, 수출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통한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홈쇼핑 지원 등 자체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잠재된 천일염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안=박용식 기자

## 영광군,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 '대상'

영광군이 전년도가 선정한 2017년도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영광군은 "2013년도 농산물 유통평가에서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대상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농산물 판촉 등 유통 종합 평가와 쌀 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농식품산업 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등 5개 분야 20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 2년 연속 농기보유곡 전망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가 재고부담을 경감하고 대형 곡물유통업체 및 식품업체(이바둑)와 고품질 브랜드쌀 6,500톤 납품 협약으로 영광 쌀 유통활성화 성과가 두드러졌다.

영광=서희권 기자

또한 영광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확대를 위한 통합RTC 무세미시설 지원, 노후화된 정미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영광쌀 판매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 모시일출원 제조업체에 영광쌀 사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영광쌀 재고 재료를 달성하였다.

## 장성군 농업인 월급제, 농가 소득안정 기여도 높다

장성군의 '농업인 월급제도'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부채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안정 제도로 농협과 지자체가 약정해 농업인들에게 매달 월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가 소득은 대부분 작물 수확기에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주 수입원이 없는 농민들은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또 농사지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철에 대출을 받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이 농업인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기는 실정이다.

농협은 농업인이 출하할 품목의 예상 소득 중 60%(농업인 예상소득에 따라 매달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를 월별로 나눠 농협 자체 예산으로 우선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정산 시기에 군에 이자(5%)를 청구하게 된다. 군이 이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바로 농업인 월급제인 셈이다.

장성군은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계획적인 생활 경영을 도움을 주며 효용을 얻자 전남 최초로 버 이외에 사과와 딸기 같은 원예농가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건 물론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

실제 장성군이 지난 9월 농업인 월급 수령자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7%가 '농업인 월급제에 만족한다'고 답하고, 95%가 '농업인 월급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내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97%에 달했다.

매달 수령하는 금액의 수준에 대해선 64%가 '만족한다'고 했고, 31%가 '보통'이라고 했다. 가정 경영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72%였다.

장성=변정모 기자

## 고흥군, 대중교통 시책 우수지자체 선정

전국 79개 군 단위 평가

고흥군이 국토교통부 주최로 실시된 201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201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 참석하여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2억 원을 받게 됐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의 시책을 19개 평가지표와 56개 항목을 기준으로,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눈으로 바라본 단일요금제(천원버스) 도입과 100원 택시 운행 등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복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13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두 번째 쾌거를 달성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교통정책을 펴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국비로 확정된 버스운영정보시스템 도입과 같은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주형일자리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